



# 옥이의 웃음

최경진

1

목련나무가지우에 앉은 노랑새 한마리가 또다시 휘파람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훗-쭉.》

옥이는 자기를 보고 자꾸 지저귀는 새소리에 저으기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웅큼 쥐고있던 나무잎사귀들을 새가 앉은 나무가지우에로 뿌려던졌습니다.

공중에 뿌려지는 잎사귀들에 공연히 놀란 새는 다시 한번 휘파람소리를 질러보고는 어데론가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제는 중등학교재원에 옥이만 홀로 남았습니다.

방금전 옥이는 분과실에 불리워가 선생님 앞에 서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옥이의 옷단추를 바로 채워주며 부드럽게 물어보시였습니다.

《옥이학생, 나무잎사귀는 왜 자꾸 교실에 가지고 들어와요?》

옥이는 눈섭을 내리깔고 구두앞코숭이만 내려다보며 서있었습니다.

끝내 대답을 못하고 분과실을 나선 옥이는 저도 모르게 교재원으로 걸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교실책상맡에 넣어두었던 나무잎사귀들은 다 여기 교재원에서 모은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신철이가 오늘 총화시간에 그걸 가지고 비판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심검둥이같은게.

신철, 이름은 짧은데 생김새는 얼마나 길죽길죽한지 모릅니다.

앞날에 용감한 인민군대정찰병이 되겠다는 그는 남에 대해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새로운것을 발견하면 가뜩이나 동그란 두눈이 촬영기의 렌즈처럼 커져가지고 좀처럼 물러설줄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온 학급이 알도록 소문을 냈습니다.

(용감한 정찰병은 무슨 정찰병, 기껏해야 《소식통》이나 되겠는지.)

옥이는 속으로 이렇게 종알거렸습니다.

그러자 귀전에는 신철이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려왔습니다.

《옥이동무는 왜 자꾸 책상안에 나무잎사귀들을 끌어들입니까. 전번 분단총회에서 교실을 알뜰하게 관리하자고 모두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옥이동무 옳지 않습니다.》

그때 얼마나 귀뿌리가 따갑던지...

옥이는 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풍잎사귀 하나가 뱅글뱅글 돌면서 옥이의 발밑에 날아내렸습니다.

옥이는 그 잎사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무잎사귀를 볼 때면 옥이에게는 제일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산림감독원이었던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산기슭의 나지막한 집, 어머니가 귀중히 여기며 가꾸던 무성한 숲과 갖가지 나무들...

생각은 어느새 날개를 펴고 고향산골로 날

아가고있었습니다.

옥이네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산림감독원으로 일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이가 태어난 해에 뜻밖에도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난 산불을 끄다가 그만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옥이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숲을 관리하는 산림감독원이 되었습니다.



옥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무잎사귀로 강아지를 만들어 자기에게 주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어머니는 산에서 올 때마다 옥이에게 갖가지 모양의 나무잎사귀들을 따다주었습니다. 그러면 옥이는 어머니가 배워준대로 나무잎사귀를 가지고 새와 토끼모양 등을 맞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돌아온 어느날 저녁이었습니다.

옥이는 꼬꼬댁 암탉이며 뿔이 난 염소, 꿀꿀돼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옥이 솜씨가 그새 무척 늘었구나!》

《정말?!》

옥이는 어머니의 목을 담썩 그러안으며 눈을 깜박거렸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학급아이들도 널 부러워할게다.》

옥이는 초급중학교에서 공부하고있었습니다.

《싫어싫어, 날 놀려주면 어쩔려구...》

옥이는 귀뿌리가 빨개져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흔들었습니다.

《그래그래, 더 멋있게 만들어서 아이들

을 깜짝 놀래우자꾸나.》

《그러다 아이들이 먼저 알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아직은 섯!— 비밀!》

그러시면서 어머니는 남이 엿듣기라도 할 듯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대며 속삭이였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한 그날부터 옥이는 날마다 나무잎사귀로 더 멋있고 영롱한 표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뜻밖에도 들이닥친 홍수에 양묘장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나무모를 구원하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옥이는 나무잎맞추기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누가 봐주고 약속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옥이의 진달래빛방볼에도 다시는 고운 웃음이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옥이의 손에서 단풍나무잎사귀가 스르르 떨어져내렸습니다.

## 2

학원마당에서는 대렬을 맞춰선 아이들이 저마끔 옷맵시들을 보느라 흥성거리고있었습니다.

옥이도 붉은벵타이 앞매듭을 동실하게 바로잡고 구두뒤축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급이 식물원에 자연관찰을 나가게 된것입니다.

자연관찰이라면 백날을 나가도 좋기만 한 옥이랍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큼직한 학습장을 옆구리에 끼고 나섰습니다.

학습장갈피에 무엇을 채집하여 넣으려는지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동무들속에는 아까부터 확대경을 한눈에 가져다대고 오락가락하는 싱검둥이 신철이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확대경안에서는 신철이의 한쪽눈이 소눈알만큼이나 커져가지고 데룩거렸습니다.

대렬에 모여선 아이들은 짹자그르르 떠들어대며 저마끔 고개를 쳐들고 선생님이 오시는가를 살폈습니다.

어느때 같으면 먼저 나오시여 옷차림부터 살펴주는 선생님이 이렇게 늦어지는것이 이상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선생님이 바삐 정문으로 들어오시였습니다.

손수건으로 연방 얼굴을 닦으며 마주오시는 선생님은 어딘가 먼길을 다녀오는것 같았습니다.

늘 반짝이던 선생님의 구두앞코송이는 축축한 물기가 어리어있고 온몸에서는 땀내가 물씬 풍겼습니다.

잠시후 옥이네 학급은 자연관찰을 떠났습니다.

식물원이 가까와올수록 옥이의 마음은 고무풍선처럼 똥똥 떠올랐습니다.

바람에 흐느적거리는 가로수들의 넉적넉적한 잎사귀들이며 아침이슬을 머금은 뾰족뾰족한 바늘잎들이 모두가 옥이를 향해 어서 오라고 손저어 반기는것 같았습니다.

식물원에 들어선 동무들은 갖가지 모양의 나무잎사귀들을 만져보며 저마끔 선생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선생님, 애기손바닥같은 저것은 무슨 잎사귀입니까?》

옥이는 그러는 동무들을 둘러보며 아래잎슬을 살짝 내밀어보였습니다.

선생님은 학급동무들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걸음 앞에 나서시였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식물도감》이라는 책이 쥐여져있었습니다.

《동무들, 매 나무의 이름들은 대체로 잎사귀의 모양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이 〈식물도감〉에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하지만 동무들은 우리 학급에 진짜 나무잎박사가 있는줄은 아직 모르고있을거예요. 그럼 이번 관찰시간에는 그 동무의 말을 들으며 나무잎들을 관찰하는게 어때요?》

《선생님, 그 동무가 누구입니까?》

뒤에 선 아이들까지 발뒤축을 들고 호기심에 차서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웃음을 짓고 동무들을 둘러보시던 선생님의 눈길은 옥이의 얼굴에 와서 멈춰섰습니다.

순간 옥이의 두눈동자가 똑 굳어졌습니

다. 놀란 심장이 금방 튀어나올듯 할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옥이의 곁으로 다가오시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동무들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옥이는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두가 놀란 눈으로 옥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신철이의 두눈이 제일 커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옥이의 머리를 정답게 쓸어주시며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급의 최옥동무는 산림감독원을 하시던 어머니를 통해 나무잎사귀들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럼 옥이동무가 나무잎사귀들을 알려주겠습니다.》

선생님은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옥이의 손목을 잡고 길옆에 심은 키낮은 나무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옥이학생,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디 말해봐요.》

옥이는 제격 그 나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나무잎사귀는 그림맞추기를 할 때 꼬마삼장을 만들기가 딱 좋은 털팡나무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는 그뒤로 키높이 자란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옥이는 제격 대답했습니다.

측백나무잎과 비슷한 뾰족잎인데 납작하게 눌러놓은것 같다고 해서 이름지은 편백나무!

그다음 또...

옥이는 어느새 어려움도 잊고 자신심에 넘쳐 설명까지 잇달았습니다.

《히야!—》

아이들속에서 탄성이 울렸습니다.

《식물도감》의 그림과 대비해보니 옥이가 대답하는 나무이름들이 꼭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옥이의 곁을 빙 둘러싸서 함께 걸음을 옮기며 연방 물음소나기를 퍼부었습니다.

옥이는 그 어떤 나무잎이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옥이와 친근해진 나무잎들이 학급동무들앞에서 자기소개를 받는것이 기쁜지 바람에 너풀거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히야— 옥인 정말 나무잎박사로구나!》

신철이가 락구알만큼이나 커진 입을 다물 줄 모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뒤더수기를 슬슬 문대며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이야, 날 용서해. 이렇게 나무잎사귀와 친한줄 모르고 내가 널 비판했구나.》

옥이도 상그레 웃으며 신철을 마주보았습니다.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며 선생님도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이는 이날 코노래를 부르며 갖가지 모양의 많은 나무잎사귀들을 채집하여 학습장갈피에 가득 넣었습니다.

학원에 돌아온 옥이는 교재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채집한 나무잎사귀들을 가지고 엄마닭과 그뒤를 따라가는 병아리들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옥이는 다시 시무룩해졌습니다. 어쩐지 자기가 엄마닭을 잃은 병아리처럼 생각되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무잎맞추기를 멋있게 해도 무슨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옥이는 한숨을 지으며 나무잎을 모아 학습장갈피에 다시 하나하나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옥이의 손을 살며시 잡아쥐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뜻밖에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옥이학생! 이 잎사귀들을 선생님에게 주지 않겠어요?》

《?!...》

옥이는 놀란채로 두눈을 깜박이며 서있었습니다.

《나도 옥이학생처럼 나무잎맞추기를 해보고싶어서 그래요.》

선생님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옥이의 어깨를 당겨 앉혀주었습니다.

《옥이학생에겐 좋은 재간이 있었구만요. 옥이학생, 선생님에게도 나무잎맞추기를 배워주지 않겠어요?》

《예?!》

속눈썹이 달짝 쳐들린 옥이의 두눈에 놀라움이 가득 실렸습니다.

선생님은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안에는 옥이의것보다 곱절이나 되게 많은 여러 나무잎들이 촘촘히 들어있었습

니다.

나무잎을 한쪽에 꺼내놓은 선생님은 《옥이학생, 선생님이 평을 만들어볼테니 어디 한번 비슷한가 보세요.》 하며 잎사귀들을 찾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책상우에 나무잎사귀그림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의 머리와 몸통이, 두다리...

이어 선생님은 수삼나무잎사귀 두개를 붙여 수평의 긴꼬리깃까지 척 붙여놓으셨습니다.

《야, 선생님, 수평입니다. 장끼!》

옥이는 너무 좋아 손뼉을 치며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옥이의 웃는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 너무 기뻐 옥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옥이학생, 이제부터 선생님과 함께 잎사귀맞추기를 해보지요. 어때요?》

《선생님, 정말입니까? 야, 좋네!》

옥이는 다시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옥이학생, 우리 나무잎사귀로 멋있는걸 만들어서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진행하는 솜씨전람회에 내놓지요. 학급을 대표해서 말이예요.》

《선생님!...》

옥이는 너무도 놀랍고 기쁘기도 하여 말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옥이학생, 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옥이는 불에 손가락을 세우고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눈길로 옥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옥이의 눈앞으로는 지금껏 보았던 멋있는 장면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옥이는 두눈을 반짝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공화국기발을 만들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무잎으로 오각별을 만들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내가 살던 집 뒤산에만도 삼각형모양의 잎사귀들이 많았습니다.》

《좋아요. 선생님도 찾아보겠어요. 우리 꼭 공화국기발을 멋있게 만들어서 동무들을 깜짝 놀래우지요.》

선생님은 신심을 안겨주듯 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었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져 몇걸음 옮기던 옥이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숨씨품을 완성하기 전에 신철이랑 알게 될가봐 걱정스러웠던것입니다. 옥이는 손가락끝을 깨물며 선생님에게 다가섰습니다.

《저— 선생님, 그런데 아직은...》

《신철이랑 다른 동무들이 모르게 하자는 거지요?》

선생님은 옥이의 속마음을 알고 입가에 손가락을 가져다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아직은 비밀!》

옥이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선생님이 꼭 어머니처럼 약속해주는것이었습니다.

옥이는 호실의 포근한 침대우에 누워서도 선생님의 모습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분이 즐거웠습니다. 마치도 저녁마다 어머니와 함께 나무잎따추기를 실컷 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옥이는 《마안산》꽃이불속에서 살며시 웃으며 꿈나라로 날아갔습니다.

### 3

다음날 아침 옥이는 학원정문에서 서성거리며 큰길쪽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는중이었습니다.

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옥이는 은근히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것은 학급동무들을 깜짝 놀래울 숨씨품을 아직 시작도 못했기때문이었습니다. 끝이 뽕족뽕족한 삼각형모양의 나무잎사귀를 얻지 못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알고 그 나무잎사귀를 찾아 어제밤 어디론가 떠나가시었습니다.

이때 교사쪽에서 신철이가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옥이앞에 다가온 신철이는 손에 들고온 빵봉지를 옥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옥이야, 간식시간이야. 자!》

옥이는 그제야 선생님을 기다리느라 간식시간도 잊은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철이가 고마왔습니다. 전번 자연관찰이 있는 후부터 신철이와 옥이는 무척 가까와졌습니다.

신철이는 해바라기모양으로 만든 빵을 옥

이에게 주며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해바라기빵은 하루도 번져서는 안돼. 너도 이 빵이 어떤 빵인지 알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아들을 위하여 매일 보내주시는 사랑의 빵이라는것을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있는 옥이었습니다.

옥이에게 빵을 주고 교사쪽으로 몇걸음 옮기던 신철은 뒤늦게 생각난듯 다시 되돌아섰습니다.

《옥이야, 선생님이 전번에 날 분과실로 부르시더니 네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는가고 물으시더구나.》

신철은 그 대답을 옥이에게서 듣기라도 할듯이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옥이는 신철이의 말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옥이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집을 생각할 때면 저도 모르게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온지 몇달 되어오지만 누구에게도 집에 대해서 말한적이 없었습니다.

신철이는 옥이의 얼굴이 금시 어두워지는것을 보자 잘못이라도 저지른듯 그 자리를 떴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집에 대해서 왜 물어보셨을까?)

옥이는 선생님을 기다리며 줄곧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렸을까...

드디어 멀리에서 선생님의 모습이 안겨왔습니다.

《선생님!—》

옥이는 얼어질듯 달려왔습니다.

선생님은 배낭가방을 멘채로 급히 마주 오셨습니다.

《옥이학생, 오래 기다렸나요?》

선생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고 바지자락은 축축히 젖어있었습니다.

어디 먼길을 다녀오신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옥이의 얼굴을 다독여주고는 의자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옥이학생, 이걸 봐요.》 하며 배낭가방을 열어보이시는데 그안에는 뽕족삼각형모

양의 일사귀들이 한가득 들어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야! 선생님, 이 일사귀가 옹습니다.》

옥이는 너무 기뻐 손뼉을 치며 환성을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가져온 일사귀는 솜씨품을 만들고도 남을만큼 많았습니다.

랑손에 일사귀들을 듬뿍 감싸쥐고 콩당콩당 뽕박질하던 옥이는 선생님의 머리를 보는 순간 그만 굳어졌습니다.

뒤머리를 꼭 묶은 선생님의 하얀 손수건에 풀씨가 두개나 박혀있는것이였습니다.

옥이는 손을 들어 풀씨를 뜯어내렸습니다. 엉정퀴풀씨였습니다.

언제인가 어머니의 머리에 붙은 엉정퀴풀씨를 뜯어주던 일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어머니처럼 선생님은 삼각형모양의 뽕족일사귀를 얻기 위해 깊은 산에 갔다온것이였습니다.

선생님의 발목에 무엇인가 할퀴운 자리가 보였습니다.

옥이는 선생님의 상처를 조심히 쓸어만졌습니다.

《선생님, 아프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선생님은 옥이의 작은 손을 다정히 감싸 쥐고 자신의 무릎우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옥이학생이 솜씨전람회에서 자랑을 떨칠수 있다면 이런 길을 계속 걸겠어요.》

옥이는 다시금 발썩 웃으며 선생님손에 자기의 볼을 꼭 가져다대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공화국기발을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아직은 췌!-》

선생님은 전번에 약속했던것처럼 웃음을 지으시며 옥이에게 가만히 손가락을 세워보였습니다.

선생님의 그 모습은 정말 어머니의 모습이였습니다.

힘한 바위벼랑에 옷자락을 긁히우고 머리에 풀씨가 오른채로 트랙에 들어서며 옥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던 어머니.

그날의 그 어머니가 바로 여기 학원에까지 달려와 어깨를 두드려주고 가슴속에 품었던 소중한 꿈까지 지켜주시는것 같았습

니다.

옥이는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라 입속으로 조용히 불려보았습니다.

《어머니!》

교재원의 나무들도 옥이의 속삭임을 들은듯 정답게 설레였습니다.

×

기다리던 공화국창건기념솜씨전람회의 날이였습니다.

옥이가 만들어내놓은 일사귀그림무이 《공화국기발》은 많은 학원선생님들과 동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전람회에서는 옥이의 솜씨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옥이의 얼굴에는 함박꽃같은 웃음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학급동무들을 대표하여 신철이가 옥이에게 큼직한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경찰병》동무가 또다시 렌즈같은 두눈을 반짝이며 새 소식을 알려주는것이였습니다.

《옥이야, 아까 선생님들이 네 솜씨품을 두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글썩 우리 선생님이 네 솜씨품을 위해 네가 살던 마을에까지 갔다오셨다누나.》



신철이의 말에 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철이의 말을 들으며 옥이의 눈앞에는 지나간 일들이 연줄연줄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다대시던 선생님의 그 모습, 축축히 젖어있던 바지사락, 발목에 낀 상처...

《선생님!...》

옥이는 선생님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만에야 아이들의 대렬뒤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옥이는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두팔을 활짝 벌리고 마주 달려왔습니다.

《옥이학생, 축하해요.》

선생님은 가슴에 꽃다발을 안고있는 옥이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옥이는 가슴을 들먹이며 선생님에게 다가섰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선생님, 이 꽃다발을 받으십시오.》

선생님은 옥이의 꽃다발을 사양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느것이였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옥이한테서 큰 선물을 받았어요.》

《예?!—》

선생님은 옥이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꼭 가져다대시였습니다.

《선생님에겐 옥이의 밝은 웃음이 제일 큰 선물이에요!》

《선생님, 제가 웃는 모습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선생님은 총총히 빛나는 옥이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말씀올 이으시였습니다.

《그래요. 옥이랑 모든 원아들의 밝은 웃음을 꽃피워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궁전도 지어주시고 지금도 머나먼 전선길을 이어가고계셔요. 옥이학생, 바로 그래서 이 선생님도 있는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은 옥이의 가슴을 쿵쿵 울려주었습니다.

(나의 웃음이 뭐라고 이렇게...)

옥이는 두눈을 크게 뜨고 새삼스레 학원을 둘러보았습니다.

푸른 주단 펼쳐진 운동장과 색유리 번쩍이는 웅장한 교사, 쌍둥이기숙사와 멋쟁이체육관 그리고 저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그 모든것이 정말 옥이의 웃음을 지켜주려고 있는것이였습니다.

옥이는 이 모든것을 안아볼듯 가슴을 넓게 폈습니다. 그리고는 밝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 날날이, 살살이

**공통뜻:** 빠짐없이, 모두, 죄다

**개별뜻:**

날날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가 조선에서 저지른 만행을 날날이 폭로하였다.

《날날이》는 주로 《발가놓다》, 《폭로하다》, 《까밝히다》, 《끄집어내다》, 《말하다》, 《터놓다》, 《고발하다》, 《생각해내다》 등과 같은

말, 생각과 관련된 동사들과 결합하여 쓰인다.

살살이—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구석이나 틈새기까지 모두.

례: 잃어버린 농기구는 포전을 살살이 뒤져서라도 찾아야 한다.

《살살이》는 주로 《찾다》, 《뒤지다》, 《훑다》 등과 같은 동사와 결합되어 쓰인다.